

## 총회, 청소년 신앙 직능 수도자와 교우 학생 부모님 신앙적 관심 필요



시흥4동 성당 청소년분과 소속 주일학교는 지난 12월 1일(토)에 그리스도왕 홀에서 회장단, 교사회, 자모회 등 14명과 주임 신부님 이하 사목협의회 여러 분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다. 2018년 결산과 2019년 사업을 선정하는 이 총회는 고등부 주일학교 이슬기(대철 배드로) 교무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주일학교 현황소개, 2018년 행사와 결산, 2019년 행사와 예산액 산정, 기타 질의 및 건의사항이었다.

- 현황소개 : 주일학교의 구성인원은 유치부에서 초등부 6학년이 38명,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2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부모의 모임인 자모회가 협조하고 있다.
- 연간행사 : 개학과 졸업식, 여름방학 신앙학교, 여름캠프 등이 있다.

• 2018년 결산 : 6,116,940원 ① + ②  
(본당지원 4,129,360원/자체부담금 1,987,580원)

① 초등부 - 1,877,570원  
축일축하식 119,720원, 전례부간식 80,000원, 학습준비비 87,700원, 부활절 달걀만들기 53,600원, 어린이날 선물 257,120원, 저학년 신앙학교 189,430원, 첫영성체 50,000원, 은총의 잔치 1,040,000원

② 중고등부 - 4,239,370원

• 2019년 예산액 :  
초등부 8,248,000원  
(본당지원 6,351,000원/자체부담금 1,897,000원)  
중고등부 5,579,000원  
(본당지원 4,129,000원/자체부담금 1,350,000원)

기타 질의에서 주일학교 구성원의 인적자원 파악과 활성화가 되었느냐는 주임 신부님의 질문에



성당 교적부에 기록된 자료는 실제로 조사해보면 주소변경이 많아 부정확하고, 교우 학부모님들께서 방과 후 신앙가정 교육이나 신앙적 인성교육보다 학원이나 과외 등 교과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다. 또 아이들은 그들을 대하는 공간과 대화가 부모 또는 다른 형(兄)과 같은 상대를 요구하고 있다. 성지순례, 캠프 등을 특히 즐거워했다고 아이들이 말했다며 자모회에서 답하였다.

주임 신부님은 데이케어센터 2층에 청소년 공간을 위한 칸막이 공사를 협의 중이라 말씀하셨고, 전례분과장은 초등부·중고등부 학생들은 남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는 시절이기에 자모회 부모님들의 수고가 많다고 격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당은 청소년과 신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직능 수도자와 공간, 학부모들의 신앙적 인성교육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맺음하며 교사들의 기도로 총회를 마쳤다.



